

한국문화교류 소식

42호 2021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반려동물 보호운동으로 생명존중과 인간성을 회복하자



박 의 근

ICKC 재정위원장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전에 설명되어 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로 불렸지만, 198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의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 국제심포지엄에서 개, 고양이, 새 등 애완동물의 가치를 재인

식하며 반려동물로 부르기로 했다.

이태리 로마의 유명한 힐튼호텔은 바티칸 베드로대성당이 눈 아래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망 좋기로 세계적인 명소다. 아름답고 화려한 이 호텔의 정원 한 가운데에 호텔 주방장이 하얀색의 높고 큰 모자를 쓰고 매번 반려동물을 위해 밥통에 음식을 직접 가져다주면서 행복해 한다. 터키도 여행해 보면 거의 모든 호텔 앞 길거리에 배고픈 반려동물들이 먹도록 호텔의 남은 음식들을 담은 소여물통 같은 큰 밥통이 예외 없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에 미국 뉴욕에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포획한 후 철창에 가두어 산채로 허드슨강에 수장시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유기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강력한 규정과 중성화수술을 시도했다. 반려동물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시행하

유기동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호의식 향상과 학대금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문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여 동물학대행위를 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되었고 중성화수술을 통해 유기견의 수를 조절하였다. 중성화수술은 고질적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양순해지며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거의 모든 수의사들은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을 권장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제도가 철저해서 유기동물이 한 마리도 없는 반려동물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와 생명존중의 정신이 부럽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식용견이라는 종자가 없는데도 반려견들을 식용으로 사육하여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일명 ‘보신탕’이라고 먹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몬도가네’, ‘야만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오고 있는데도 여전하다. 불법사육, 잔인한 도살을 비난하는 여론을 피해 일부 유기견 보호소의 사체들과 몰래 들여온 중국산 개고기로 보신탕 영업을 한다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날을 희망해본다.

1801년에 작성된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에 신유박해의 천주교 탄압으로 제천 근처 배론 지역으

로 피신한 신도들이 1800년 부활절에 개고기 잔치를 했다고 적혀 있다. 지금도 그 후손들과 신부, 수녀, 신도들이 먹을 것이 이렇게도 많은 세상에 키우던 누렁이가 좋다고 잡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전통적 천주교 집안이라 어릴 때 집에서 가끔 먹으니 먹는 음식인 줄 알았다. 식용견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반려동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서부터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있다.

사람에 의해 보호만 받았고, 생존을 위해서 아무 것도 혼자 할 수도, 할 줄도 모르는 반려동물, 삶의 장소를 잃어 버렸거나, 버림받은 이 가없는 동물들을 보살피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위도 해보지만 매번 가슴이 아프고 찢힘은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이라는 잔인한 존재가 버렸고 그 보살핌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 오고 있다. 참으로 존경 드리고 고마운 일이다. 이제 늦었지만 저명인사들이 회원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금지운동에 적극 나서 주길 제안하고 희망한다.

태권도의 충(忠)·효(孝)·박애정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학대 금지하는 일에 앞장서자.

반려동물은 순수하고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주인에게 주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으면서 주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유기동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호의식 향상과 학대 금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문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 그만큼 동물 유기나 학대 등을 고발하

는 보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작은 케이스 안에 불결하게 키우면서 평생 끝도 없이 새끼를 낳게 해서 돈을 버는 번식공장, 펫샵을 통해 생명을 기호품으로 거래하는 문제, 키우다 아프거나 귀찮으면 그냥 버리는 비정한 사람들의 행위, 개고기를 팔기 위해 불법사육하고 학대하며 무자비하게 죽이는 야만 행태 등등,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황과 너무나도 많은 반려동물을 계속해서 안락사를 시켜도 끝이 없는 현실의



▲ 필자의 집에 있는 유기동물 운동장에서의 망중한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유기반려동물 입양 사업을 병행하고, 중성화수술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법제정과 강력한 벌칙과 단속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신탕을 먹는 야만국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한류 및 태권도와 함께 한국문화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야생동물도, 가축도 아닌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이 순간에도 주인과 집을 잃고 공포와 굶주림의 고통 속에 방치되고 학대받고 있다. 실로 가엾고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는 박애정신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자.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와 세계의 모든 태권도 관련 단체와 태권도장의 수많은 수련생들이 함께 태권도의 충(忠)·효(孝)·박애정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학대 금지하는 일에 앞장서자.



특별기고

태권도와 사회적 책임 : 세계태권도연맹 글로벌평화운동 사례

세계태권도연맹 케어스 프로그램 총괄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ICKC 강석재 이사가 태권도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은 지난 11월 16일(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주최·주관한 2021 ICM 국제무예학술세미나 “무예의 사회적 가치 : 상호존중과 비폭력성의 역설을 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의 요약본으로서, 난민, 폭력 피해 여성, 고아 등 전 세계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과 노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의 박애정신 및 평화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존중과 열정을 잘 보여 주는 소중한 글을 기고한 강석재 ICKC 이사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_ ICKC 사무국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들어가는 말

태권도는 자기반성, 자기수양, 극기, 자신감, 존중, 인내 그리고 심신의 균형 등의 미덕을 가르친다. 태권도의 미덕은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

고, 마음과 동작을 일치시켜 이러한 조화가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으로 연결되게 한다는 점이다. 태권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핵심 가치인 인류에게 평화를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는, 유엔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기본 이념과 맥을 같이한다.

태권도는 크게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통을 중시하는 무예 태권도로 이를 관장하는 단체는 국기원이며, 두 번째는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로서, 이를 총괄하는 단체가 세계태권도연맹(WT)이다. 태권도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WT는 그 동안 선의의 활동을 통한 태권도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에 대하여

WT는 전 세계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를 관장한

다. 1973년 창설된 WT는 1980년 IOC로부터 전 세계 태권도를 총괄하는 국제 스포츠 연맹으로 승인을 받았다. WT는 대한민국 서울에 본부 그리고 스위스 로잔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10+1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1은 WT가 난민 선수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어서 전 세계 난민을 하나의 회원국으로 간주한 것이다. WT는 전 세계 12개 지역에 훈련센터를 두고, 대한민국 무주 태권도원을 WT 중앙훈련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04년 6월부터 조정원 총재가 고 김운용 초대 WT총재에 이어 WT 수장을 맡고 있다. WT 총재는 매 4년마다 WT 총회에서 선출된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참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태권도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처음 정식종목으로 참가했다. WT는 매 2년 마다 개최되는 가장 권위 있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를 포함하여 총 11개 태권도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WT와 사회적 책임

WT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정원 WT 총재 취임 초창기에는 조직의 개혁과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생존에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IOC는 2005년부터 모든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종목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WT는 2008년부터 올림픽 국제 스포츠 연맹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태권도평화봉사단

WT는 태권도 정신을 공유하고 스포츠가 세계

평화와 소통 그리고 교육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08년 7월 5일 태권도평화봉사단(TPC)을 출범시켰다. TPC는 '위대한 태권도 정신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모토 아래 태권도계에 모습을 나타낸 WT의 첫 번째 세계 평화 운동이었다.

조정원 총재는 2004년 6월 WT총재에 취임한 직후 국제 스포츠계에 태권도와 WT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PC 출범을 약속했다. 조 총재는 2007년 9월 21일 벨기에 루벤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평화 워크숍에서 처음 TPC 구상을 발표하고 그 해 12월 6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된 국제 평화 스포츠 포럼에서 재차 TPC 출범을 밝힌 바 있다.

TPC 첫 해외 파견 사업으로 2008년 7-8월 방학 기간 중 단기 봉사 7개 팀을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파라과이와 중국에 파견했으며, 각 봉사팀은 대학생 위주로 국기원 3단증 이상 소지자 3명과 언어 능통자 1명 등 각 4명으로 구성되었다. TPC는 2009년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지금까지 단기 봉사 24번에 걸쳐, 2,500명 이상이 123개국에 파견되어 봉사를 해왔다.

조 총재는 세계평화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WT가 주도한 TPC를 유엔과 IOC와 함께 공동 참여하여 모든 올림픽 종목이 참가하는 새로운 "스포츠 평화 봉사단"(Sport Peace Corps)을 창설하여 유엔 산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봉사단원을 파견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태권도박애재단

WT는 2016년 4월 전 세계 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스위스 로잔에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THF)을 별도 기구로 설립했다. 조정원 WT 총재는 2015년 9월 21일 "유엔 세계 평화의 날"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THF의 출범

을 공식 발표했다.

THF는 ‘스포츠를 통한 난민 역량강화’라는 미션 아래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들에게 무예와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THF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시설 그리고 올림픽 정신, 세계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시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THF는 현재 요르단(아즈락 시리아 난민 캠프), 르완다(마하마, 키지바 캠프), 터기(엘베일리 난민 캠프), 그리고 스위스(로잔)에서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THF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약 3천 명의 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THF는 2016년 4월부터 요르단 암만에 위치한 THF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아즈락 난민캠프에 “휴머니테리언 태권도 센터”(Humanitarian Taekwondo Center)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즈락 난민캠프에는 현재 100여 명 난민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현재까지 6살 여자아이를 포함한 총 16명의 태권도 유단자가 배출됐다.

THF는 총 10개 국제스포츠연맹들과 “휴머니테리언 태권도 센터” 공동 사용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10개 스포츠는 레슬링, 탁구, 배드민턴, 유도, 하키, 무에타이, 야구-소프트볼, 삼보, 파워보트, 그리고 볼링이다.

THF는 빠르면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올림픽난민재단’(ORF)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난민 프로그램

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 파리올림픽 종료 시점까지 운영될 THF 파리 프로그램에는 약 1천명 난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IOC가 설립한 “올림픽난민재단”은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조정원 WT총재가 초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THF는 현재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WT 케어스 프로그램

WT는 IOC산하 국제 스포츠 기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6년 초 WT 자체 태권도 “케어스(Care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WT케어스프로그램은 WT국제협력국의 회원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모두가 즐기는 태권도, 태권도를 통한 세계평화’라는 미션에 따라 WT케어스프로그램은 저



스포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범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WT는 태권도를 통해 포용성, 존중, 인내, 예의, 도덕성 등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국 소외계층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고아, 노숙자, 재소자,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WT는 2016년 네팔 지진 피해 지역과 요르단 암만 아즈락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케어스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WT는 2017년 기업의 사회책임 프로그램에 따라 아프리카에 많은 희망 학교를 건립한 S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BS 희망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1년간의 케어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2019년에 제2차 사업을 수행했다. WT는 2019년 아시아발전재단(ADF)의 재정 지원으로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에서 1년간 태권도 무상 교육을 지원하는 케어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은 2019년 “WT-ADF Cares 프로그램” 관련 1억원을 WT에 지정 기부하고, 2020년에 미화 15만 달러 그리고 2021년에 미화 20만 달러를 전달했다. WT는 2020년 12월 스리랑카 및 부탄과 1년간의 케어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21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요르단, 터키, 아프가니스탄 등과 케어스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WT는 향후 케어스 프로그램을 아시아 지역 이외의 다른 모든 대륙으로 확대하고, WT 회원국가와 대륙연맹이 별도의 국가별 또는 국제적인 자체 케어스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WT 슬로건은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이다. 이 슬로건 문구는 조정원 WT 총재의 선친인 조영식 박사가 저술한 책 제목이다. 조영식 박사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난민이었다. 조 박사는 한국이 1950~6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를 복구할 때 문명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과 평화가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이 두 분야에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었다. 조 박사는 이러한 이유로 교육 증진을 위해 경희학원을 설립하고 1975년 “지구공동사회” 건설을 위해 GCS운동을 시작했다.

GCS운동은 문명사회에 기여하는 개인의 윤리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소박한 시작과 비전에서 1981년 세계적인 평화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 박사의 세계평화운동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 박사가 세계대학총장회(IAUP) 의장직을 맡고 있던 1981년 7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IAUP 총회에서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처음 제안했다.

당시 남한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코스타리카가 IAUP를 대신하여 1981년 제36차 유엔총회에 세계평화의 날 제정 안건을 제출했다. 같은 해 유

태권도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로서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전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복 받은 스포츠이다.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평화를 사랑하는,

비폭력적인 무예 스포츠이다.

엔은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9월 세계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후 9월 21일로 변경되었다. '유엔 세계평화의 날'이 9월 21일로 정해진 역사적 배경이다.

2021년은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조 박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 박사의 이러한 장대한 평화 비전에 영감을 받은 조정원 WT총재는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를 통한 평화 구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

WT의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올림픽 '아젠다 2020+5' 기여

WT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중 SDG 3 건강과 웰빙, SDG 5 양성평등,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0 불평등 완화,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SDG 13 기후변화와 대응, SDG 17 파트너십 분야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WT는 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5'에 따라 난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태권도박애재단, 올림픽난민재단, 기타 난민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태권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이슬람계 태권도 선수의 머리 보호 장구 밑에 히잡 착용을 허용한 최초의 올림픽 종목이었으며, 또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남녀 동수로 국제심판을 보게 한 유

일한 올림픽 종목이었다. WT는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국제스포츠연맹 중 하나이며, IOC로부터 WT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맺음말

스포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범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WT는 태권도를 통해 포용성, 존중, 인내, 예의, 도덕성 등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이 말은 WT와 태권도 박애재단의 설립 배경이다. WT는 '하나의 세상, 하나의 스포츠 태권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10여년 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올림픽 핵심종목으로서 태권도의 위치를 공고히 해 왔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3년에 가장 존경 받는 국제 스포츠 단체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이자 국기이다. 태권도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로서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전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복 받은 스포츠이다.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평화를 사랑하는, 비폭력적인 무예 스포츠이다.



코로나19 속 한국어 교육 현장



김 태 은

프랑스 라로셀 세종학당 교원

2020년 석사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파견 교원직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라로셀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으로 선발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파견지로 출국을 못 하고 대기 중인 파견 교원들이 많았으나 당시 프랑스는 입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파견지로 출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필자는 2020년 9월 프랑스의 항구 도시 라로셀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곳에서 근무한 지 1년하고 2개월이 되었다.

라로셀 세종학당은 2015년 세종학당재단의 지원 아래 라로셀 대학교와 경희 대학교의 협력 하에 개원하였으며 매 학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수업이 개설된다. 현재 라로셀 세종학당에는 1명의 한국 문

화 교원과 3명의 한국어 교원이 학당의 수업, 행사 등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종학당재단과 라로셀 대학교가 협력하여 라로셀 대학교의 한국어 부전공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부전공 강의도 담당하기 위해 파견된 교원이다.

작년에 프랑스에 도착했을 당시 코로나19 중에도 프랑스의 고등 교육 기관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필자도 첫 한국어 교육 경험을 대면 수업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9월 학기가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권장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그 이후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 겨우 2개월 대면 수업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기 중간에 교수법을 바꾸고 온라인 강의에 맞게 교재를 편집하고 학습 자료를 추가 제작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히 세종학당재단과 학당 운영 교원분이 미리 드로잉 태블릿, 웹카메라 등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해 준 덕분에 원활히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첫 학기는 그렇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복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 학기인 올해 1월에는 개강부터 종강까지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지난 학기의 경험을 통해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회의 플랫폼

의 소그룹 기능을 사용해 짝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부전공 수업에는 28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인원을 하나의 작은 컴퓨터 화면상으로 지도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학습자와 교원 모두에게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1학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수업을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번 하반기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의 전체 얼굴이 이번 학기에는 마스크 때문에 반절이 가려져 학생들의 모습을 다시 인식해야 했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비중이 더 높았던 비대면 수업과 달리 양방향 의사소통이 더 원활한 현장 수업 방식에 맞추어 교수법을 바꿔야 했다. 이렇게 필자는 파견된 기간 동안 비대면 및 대면 복합 방식, 비대면 방식, 대면 방식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현장을 모두 경험했다.

라로셀 세종학당에는 비대면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수강생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이번 학기에는 지난 두 학기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대도시도 아닌 서부 쪽에 있는 작은 도시의 학당, 학부, 그리고 대학원에서까지도 수강생이 늘어난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것을 체감했다.

이번 학기에는 독학으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학당

에 등록한 경우를 꽤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동안 혼자 공부하다가 조치가 해제된 후 바로 등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리고 첫 학기 때는 단순히 케이팝,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국 유학 또는 인턴십 준비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동기를 가진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실제로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유학 및 인턴십을 떠나는 학생들의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어 교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이곳 라로셀에서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을 처음으로 만났다. 이동금지령으로 인해 타지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고립되고 파견 기간 중 한국 방문 일정이 취소되면서 이곳에서의 기억이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을 만도 한데, 열의 넘치고 마음 따뜻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선생이 되고자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리고 현지 교원 분들에게서 신경 써 주시고 챙겨 주신 덕분에 전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필자에게는 인생이 준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 라로셀 세종학당 학생들과 수업 모습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한마음 토론회’ 및 ‘태권도영상공모전’ 시상식 성료

‘태권도 발전을 위한 한마음 토론회’ 및 ‘태권도 영상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2월 3일(금) 서울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열렸다. 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이 주최하고 한국체육학회, 세계태권도연맹(WT),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ICKC에서는 조정원 총재, 조남철 고문, 박의근 재정위원장, 강석재 이사 등이 참석했다.

‘태권도의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한마음 토론회는 김도균 한국체육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ICKC 총재이기도 한 조정원 WT 총재와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이 참가하여,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가치 및 사회적 책임, 향후 태권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나눴다.

다음으로 ‘태권도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순서에서는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ICKC 고문)가



▲ ‘한마음 토론회’ 및 ‘태권도 영상 공모전’ 주요 참석자 기념 촬영. (왼쪽부터 차례로) 김도균 한국체육학회 회장, 이인철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겸 ICKC 고문,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손효동 아시아발전재단 이사.

태권도 대중화에 공헌한 나일한 WT태권도시범단장, 연예인 나태주, 김준식 멕시코 정부 파견 사범, 서성원 태권박스미디어 편집장, 그리고 조윤희 남서울대학교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아시아발전재단이 주최한 '2021 태권도 영상공모전' 관련 심사 경과보고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태권도에 관심 있는 국내외 모든 사람이 참여한 이번 태권도 영상공모전은 '잼있는 태권도', '뽐내는 태권도', '함께하는 태권도' 3개 분야로 10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15개 국가에서 응모한 총 305편의 작품을 예심과 본심의 2단계로 나누어 심사한 결과 대상의 영예는 '함께하는 태권도' 부문에 지원한 프랑스 팀인 ENVOL TKD의 'Amateur'(아마추어)가 돌아갔고, 그 밖에 최우수상(3편), 우수상(3편), 장려상(8편) 그리고 특별상(1편)이 선정되었다.

또 BTS와 Cold Play가 함께 한 'My Universe'에

맞추어 '태권도 댄스'를 선보인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짜아찌아족은 아시아발전재단 이사장 특별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2020년 한국짜아찌아 문화교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짜아찌아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태권도 교육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번 특별상은 아시아발전재단의 지원으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는 현지 학생들이 참여하여 수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 '2021 태권도 영상공모전' 수상자 단체 촬영



한국어

K콘텐츠 열풍에... 英 한국어 학습자 76% 급증,

한국어 가르치는 세종학당 14년 새 3국→82국 급증

미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주(州)에 있는 브라운대는 올 가을 학기부터 중급 한국어 강좌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정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총 102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 가을 학기(61명)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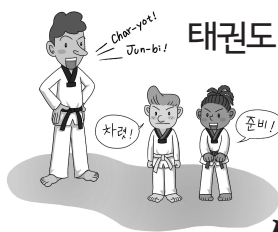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그룹 방탄소년단 등 한류 열풍이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현지 시각) 전 세계 5억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에서 오징어 게임 방영 직후 영미권 학습자가 폭증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뒤 영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2주 만에 76%, 미국에서는 40%나 늘었다고 했다.

지상파 TV에 한국어 강좌를 신규 편성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 공영 교육방송인 VTV채널은 지난 9~11월 한국 세종학당재단과 공동 제작한 한국어 강좌 ‘한국어로 말해봐요’(총 20강)가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됐다. 베트남 지상파 TV에 한국어 강좌가 편성된 것은 처음이었다. 세종학당이 진출해 있는 국가는 처음 설립되던 2007년과 비교해 27배(3국→82국) 증가했고, 외국인 학습자 숫자는 103배(740명→7만6000명) 늘었다.

[기사 출처]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2021/12/06



▲ ‘2021 세종학당 우수학습자대회’(2021/10/08,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세종학당 학생들. (사진: 뉴시스)



바티칸, 세계태권도연맹 2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바티칸시국이 세계태권도연맹(WT)의 211번째 회원국이 됐다. WT는 지난 11월 24일 바티칸을 연맹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WT에 따르면 잠파올로 마테이 바티칸 체육협회장이 지난달 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서신을 WT에 보냈다. 이에 WT는 회원국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회 전자투표를 진행해 바티칸을 211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바티칸 체육협회는 2019년 설립했으며 교황청의 공식 스포츠 법인이다. WT는 국제사이클연맹(UCI)에 이어 두 번째로 바티칸을 회원국으로 승인한 국제스포츠 연맹이다. WT는 최근 몇 년간 바티칸과 협력해 왔고, 특히 조정원 WT 총재는 교황청 문화평의회 산체스 몬시놀 의장과 바티칸에 WT 태권도협회 개설을 위한 교류를 여러 차례 이어오다 이번에 결실을 봤다.

조 총재는 2017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명예 10단증을 전달했으며, 2018년 WT 시범단은 교황청의 초청으로 교황 주재 수요미사회가 열리는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범을 선보인 바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교황청에서 처음 열린 '신앙과 스포츠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식에서도 WT 시범단이 공연을 펼쳤다. 또한 바티칸 영내에 있는 '성비오 10세 소(小)신학교'는 이탈리아태권도협회와 협약을 맺고 2020년 10월부터 사제 교육에 받는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1/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4049900007?section=search>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성베드로 광장 공연 모습. (사진: 세계태권도연맹)

■ 경복궁 탐방 및 ICKC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 11월 6일(토), 정부의 코로나 모임 인원 기준 완화에 따라 ICKC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됨에 따라 대면회의로는 거의 1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ICKC의 운영 및 사업 현황,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사랑 운동을 포함해 추후 전개할 신규 사업 등 ICKC의 당면 과제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가을색이 완연한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과 복원 공사를 마치고 4년 만에 다시 개방된 향원정을 돌아보며 우리 고궁의 정취를 만끽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여러 회원이 모여 우리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함께 의견 나누며 즐길 수 있는 날이어서 오기를 기원하며 탐방을 마쳤다.



▲ 경복궁 내에서 회의 중인 ICKC 운영위원들

■ '2021 동물복지대상 시상식' 참석

지난 12월 10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동물복지대상은 매년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 · 학계 · 법조계 ·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참여해 한해 인상적인 동물보호 · 복지 활동을 펼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19년부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 이현승 · 한정애)에서 주관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헌정 사상 최초로 2015년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최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동물권 향상 및 동물복지 문화의 확산을



▲ 동물복지국회포럼 및 동물복지대상 수상자 단체 촬영

위해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본 시상식에 ICKC를 대표하여 전영섭 감사와 박창식 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인 박홍근 의원 및 한정에 환경부 장관에게 시상식 개최 축하 인사 및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사랑 운동의 의의에 대한 ICKC의 입장을 전하고 환담했다.

한편 올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수의사 한병진씨는 2012년부터 고양시 유기동물 쉼터를 건립하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중성화 수술, 의료지원에 힘써왔다. 개고기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시민운동도 적극 참여해 전개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의 동물복지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수의사회에서 동물사랑실천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한국일보 애니로그래프(언론·출판 부문) △전북 전주시(이하 공공·지자체 부문 우수상) △경남 통영시 △21그램(기업 부문 우수상) △동물과 함께행복한세상(이하 단체·개인



▲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 중 왼쪽)과 한정에 환경부 장관(오른쪽 사진 중 가운데)과 환담 중인 ICKC의 전영섭 감사(오른쪽 사진 중 왼쪽)와 박창식 전의원.

부문 우수상)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이하 정책·학술부문 특별상) 등 10개 개인·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 원장과 면담

지난 12월 17일(금) 저녁, ICKC의 박의근 재정위원장과 전영섭 감사가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의 김용준 원장(수의학박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과 만나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운동의 의의와 방향, 효과적인 방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과정의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수의학 교육 및 수의사 양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준 교수는 단체의 원장으로서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을 비롯한 의료봉사 등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ICKC가 앞으로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하였고, ICKC 임원진 또한 서로 뜻을 모아 함께 하자고 협조를 구하며 감사를 표했다.

■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회장과의 만남

지난 12월 21일(화) 오후, ICKC를 대표하여 조정원 총재(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박의근 재정위원장이 대한태권도협회(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의 양진방 회장(체육학박사, 아시아태권도연맹 부회장) 및 아시아발전재단(ADF)의 조남철 상임이사(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와 모임을 가지고, ICKC가 앞으로 전개할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운동의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조정원 총재와 박의근 재정위원장은 태권도의 박애정신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나 기타 교육자료 등을 통해 유·초등학생 등 태권도장원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생명 존중의 소중함을 교육한다면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운동의 의의를 알렸다. 또한 ICKC가 앞으로 동영상 콘텐츠 공모 및 교육자료 제작 등 태권도 정신 및 교육과 결부된 생명 존중 의식 운동을 펼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전국 태권도장 및 태권도 사범들의 조직 및 체계를 관할하는 태권도협회의 장으로서 ICKC의 사업 전개를 위해 전국 태권도 교육기관의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약했고, 참석자 모두 각 단체 간 긴밀한 연락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모임을 마쳤다.



▲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

2021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1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성구,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김창욱,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자효,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정우,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호정, 장정용,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재)아시아발전재단, (주)동이지질,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비아디빈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제일이엔에스(주), (주)P&H 가나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22일까지 총액 : 29,49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종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호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를 손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및 다문화 관련
교류협력사업, 인재양성사업, 공익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슬로건 Slogan

Great Asia!

다시 아시아로!



비전 Vis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미션 Mission

교류와 협력

나눔과 상생



아시아발전재단 주요사업

교류협력 문화교류캠프, 학술활동 지원, 한민족청년캠프 등

인재양성 아시아·국내·동포 장학사업, 이중언어교실 지원 등

공익문화 해외 태권도·한글 보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등

